

## 2011년 '장애인의 날' 기념 담화문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티아서 3,28)**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이하여 장애인 여러분과 그 가족들,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현재 정부의 복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도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장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질환 및 사고의 '후천적 원인' 90.0%, '선천적 원인' 4.9%의 비율로 후천적 원인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가다 질환이나 사고를 통해 장애를 얻게 되어 우리 사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전체의 35%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회, 교회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성을 발견하고, 확인시켜 주며,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서로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김용태 신부

201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제28회 혼자리축제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다운 사람이

1. 장애인 인식개선 (본당과 지역이 함께하는 장애체험)  
 \* 기간 : 4월 한달간  
 \* 장소 : 서울대교구 본당

2.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4월 16일(토) 동성고등학교 강당  
 \* 1부 : 오후 2시, 기념미사 및 기념식  
 \* 2부 : 오후 3시 30분, 축하공연  
 \* 후원 : 서울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주관 : 서울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주최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Seoul)  
 후원 :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재)바보의 나눔, 평화방송·평화신문  
 문의 : 02.727.2240

### 2011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제28회 혼자리축제 개최"

- |  |  |
|--|--|
| 1. 장애인 인식개선<br>(본당과 지역이 함께하는 장애체험)<br>기간 4월 한달간<br>장소 서울대교구 본당 | 2.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br>4월 16일(토) 동성고등학교 강당<br>1부 오후 2시, 기념미사 및 기념식<br>2부 오후 3시30분, 축하공연 |
|--|--|

- 주관 서울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 주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Seoul)
- 후원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재)바보의 나눔, 평화방송·평화신문
- 문의 02.727.2240

※ 자세한 내용은 본지 4면 '함께하는 사회사목' 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소 1주년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가운데),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왼쪽),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정성한 신부가(오른쪽) 3/22(화), 서울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소 1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소 1주년 ... 올해 2월까지 6,980건 상담

범국민적인 자살 예방 교육과 청소년 자살 예방의 안전망이 될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보미 수녀)가 지난 2010년 3월 22일 개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2층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2011년

2월까지 1년동안 6,980건의 자살예방 전화상담을 하며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 심각하게 죽음을 고민하던 이들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센터의 노력은 전화상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사이버상담실을 마련해 온라인에서의 자살예방에 나섰고, '청소년 생명학교'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자살 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게 될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 교육에는 현재까지 5개 중·고

등학교 2,707명이 참여했습니다. 상담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이뤄집니다. 100여 명에 이르는 기존 전화상담 봉사자들을 재교육하고, 신규상담 봉사자도 계속해서 양성 중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은 물론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살 예방 및 사후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자살은 단순히 몇몇 전문가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살 관련 위험인자를 발견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범국민적인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의 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일궈나가길 바라며, 센터도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널리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위기상담전화 1599-생명친구(3079) 사이버상담 <http://www.3079.or.kr>

## 에이즈 예방캠페인

**HIV/AIDS 편견 깨기** 에이즈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에이즈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주로 감염인과 성적 접촉이나 오염된 혈액의 수혈 등을 통하여 감염이 이루어지며, 감염 경로는 수혈, 감염인과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 마약 및 각성제의 정맥주사기 공동 사용, 모자감염 등이 있습니다.

에이즈는 정확한 이해와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한국 가톨릭레드리본에서는 에이즈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을 주세요.

• (사)한국가톨릭레드리본 (02)753-2037~8 • 홈페이지 <http://www.redribbon.kr>  
• HIV/AIDS감염인 상담전화 010.5108.2958 • 감염인 취약계층 지원상담 010.7725.2037

# 한국교회, 일본 대지진 복구 지원에 한마음 ...



▲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일본 센다이시의 모습. (출처, 일본카리타스 제공)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긴급구호자금 5만 달러 우선 지원



▲ 3/16(수), 센다이교구 사무국에서 일본카리타스 관계자들간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출처, 일본카리타스 제공)

한국교회가 일본 동북부 지역에 발생한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국 각 교구들은 2차

특별헌금을 실시했으며, 구호개발 NGO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도 초기 긴급구호자금 5만 달러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본부는 앞으로 일본카리타스·한국카리타스와 더불어 일본 대지진 이재민들을 위한 중장기 복구 및 재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카리타스는 3/16(수), 센다이교구 본부 사무국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히라가 데츠오 주교(센다이교구장)를 센터장으로 하는 '센다이교

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지역 본당들과 함께 생존자들에게 식량과 담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다이교구와 함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이타마교구도 3/19(화), '사이타마교구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피해지역을 방문한 일본카리타스 관계자는 "센다이 시내에서 식료품과 휘발유를 구하기 위해 사람과 자동차가 길게 줄을 서 있다"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해안가에 가면 그 근처가 다 진흙투성이로 악취를 풍기고 있고 망가진 자동차와 쓰레기가 이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은 피해규모로 봤을 때 피해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복구와 재활사업이 중요합니다. 본부는 현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 일본카리타스·한국카리타스와 협력하여 현황 파악과 향후 사업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대지진으로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절망에 빠진 일본 국민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12기 모집

마음을 열면 지구촌 이웃들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구촌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며 우정을 교류하는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12기를 모집합니다.

- 전체기간 5/21(토)~7/28(목)
- 활동내용 OT, 배움터, 몽골 현지 및 국내체험 활동 등
- 지원요건 만 19세 이상 청년
- 접수기간 4/4(월)~5/6(금)
- 문의 02. 727. 2287

※ 자세한 사항은 본부 홈페이지(<http://www.obo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100원 모으기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1년 3월 30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512-03-004088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봉사 기본교육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이 기록, 관리됩니다.

더불어 40인 이상 신청 단체, 본당대상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단체, 본당에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27.2248

환경사목위원회

2011년 제 12기 하늘·땅·물·벗 입문강좌

- 일시 4/12(화)~5/31(화), 총7주간, 매주 화 10:00~12:30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대상 생명과 생태, 소박하고 느린 삶을 원하는 사람 80명
- 문의 02.727.2275, 2278

2011년 가톨릭 유아교육 담당교사들을 위한 생태월례강좌

- 일시 4/16(토), 10:00~16:00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대상 가톨릭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

- 담당 기관장 및 주임교사 및 관심자
- 내용 가톨릭 내 숲 생태유치원의 이해 및 운영방안
- 접수 및 참가비 4/16(토)까지 '생태월례강좌 신청서'라고 표기 1인당 2만5천원
- 문의 02.727.2283

제2차 생태신학 및 생태영성 간담회

- 일시 4/20(수), 18:30~20:00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
- 대상 생태신학 및 생태영성을 연구하거나 이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단체, 수도회
- 내용 생태신학, 생태영성과 관련한 정보교환, 친교
- 문의 02.727.2266

2011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제28회 훈자리축제 개최"

올해 28회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 기념 <훈자리축제>가 '아름다운 세상아, 아름다운 사람아'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됩니다. 본 축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은 4월 한 달간 서울 내 본당의 참여 의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800여명이 함께 하는 '축하공연'은 4월 16일(토) 14:00,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재)바보의나눔이 후원합니다. •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2.727.2240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김진혁 아르테미오 (2010.11.24생 父 김태성/ 母 김미란),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한별 마리아 (2010.2.25생 父 김정훈 / 母 고새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임준섭 레오 (2008.3.18생 父 임동원 / 母 이차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수진 헬리나 (2010.11.23생 父 김동욱 / 母 임민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문치호 미카엘 (2010.3.8생 父 문상수 / 母 최지영),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문치연 라파엘 (2010.3.8생 父 문상수 / 母 최지영),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김범준 (2011.2.15생 父 김정현 / 母 김운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루멘 (2011.2.21생 父 정재용 / 母 이종은),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태린 데레사 (2010.3.9생 父 김준규 / 母 김지민), 5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강승현 수산나 (1991.9.19생 父 강석홍 / 母 김정순),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신민수 (2010.3.16생 父 신길호 / 母 최지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지안 소피아 (2010.3.15생 父 이승창 / 母 강수하),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정호 (2010.3.27생 父 이승철 / 母 박선영), 44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박희원 아멜라 (2010.3.19생 父 박락응 / 母 지소영),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선중 가브리엘 (2011.1.2생 父 김용상 / 母 서정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래현 (2010.3.30생 父 김보균 / 母 이애영),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권재이 (2010.3.18생 父 권병철 / 母 이보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해인 루피나 (2010.3.24생 父 김범상 / 母 이소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재인 세라피나 (2010.3.24생 父 김범상 / 母 이소라),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67 •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